

개발의 '쓴' 그늘...그래도 의지할 곳은 바다뿐

[발로 딛는 잠녀의 삶] 한림읍 한림리

등록 : 2007년 01월 21일 (일) 15:46:00
최종수정 : 2007년 01월 21일 (일) 15:46:00

고 미 기자 ✉ popmee@hanmail.net

한 시대를 풍미(?)했던 광고 카피처럼 '바다의 변신도 무죄'라고 해야 할까. 이곳 잠녀들의 바다에는 이전의 풍족했던 기억은 사라지고 대신 항만개발계획 등으로 건설된 38만㎡ 규모의 한림항이 들어서 있다.

한림항 개발에 대한 설렘이나 보상에 대한 기대는 일찌감치 사라지고 없고 지금은 잃어버린 과거의 정취와 저만치 사람들과의 거리감만 남았다.



▲ 비양도 공동작업에 나가는 잠녀들이 배에 오르고 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잠녀들의 작업에는 '휴식'이 없다<김대생 기자>

△그래도 의지할 곳은 '바다'뿐

한림 어촌계의 잠녀들은 아홉물을 제외하고는 물에 든다. 요즘도 한번 물에 들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작업을 한다고 했다. 점심이나 간식을 먹는 일은 아예 계획에 들어있지 않다. 뱃삿까지 내며 비양도 작업을 하는 만큼 1분1초도 아깝다.

한림 어촌계를 찾은 날 역시 잠녀들은 물질작업 준비가 한창이었다.

이곳의 상시잠녀는 10명 안팎. 해경을 하거나 툯 공동작업을 할 때는 18명에서 20명까지 바다에 나선다.

한림항 개발로 마을어장이 작아지면서 이맘때면 거의 비양도 물질을 한다. 이곳 잠녀들의 물질 작업 일수는 한달평균 16~17일, 여름에는 많게는 23일까지 작업을 하지만 겨울철 작업 일수는 보름에도 미치지 못한다. 올 겨울은 그나마 날씨가 괜찮아 15일까지 작업을 한다.

작업 준비에 속도가 붙으면서 취재를 하는 것 역시 전쟁이 됐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그러는 것처럼 물질에 쓸 도구를 하나하나 살피는 게 처음이다. 이전 불턱 대신이 된 탈의장내 낡은 석유난로 앞에서 서로 고무뱀을 입는 것을 도와주고 귀막이는 챙겼는지 '뇌선'(두통약)은 먹었는지 확인해준다.

다음은 저마다 거울을 챙겨 앉는다. 기초화장품 위에 꼼꼼히 파운데이션을 바른다. 고무뱀이 닿는 부분에 마사지 크림을 바르는 잠녀도 있다.

"곱다"는 말에 웃음이 터진다. "바다에 나가면 계절 구분없이 많이 탄다"며 "화장은 마음을 다잡는 것은 물론 피부 보호를 위해 하는 것"이라고 설명해준다.

입으로는 연신 "오늘 좋겠다"는 얘기뿐이지만 물질을 마쳐야겠다는 말은 나오지 않는다. 비양도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 옹포로 출발하기전 부리나케 썩을 찾는다. "수경을 닦으면 좋다"는 설명이 뒤따른다.

비양도로 나가는 배 위에는 한림 외에도 옹포·형재 등 다른 어촌계 소속 잠녀들이 올라탄다. 와르르 웃음이 쏟아진다. 수경을 닦는다던 썩으로 코를 막고 있는 잠녀가 보인다. "감기로 코가 막혔을 때 썩으로 막아주면 좋다"는 그네들의 민간요법이다.

구복순 잠녀회장(59)은 "출발전엔 먼 바다가 까맣더니 와서 보니 하얗다"며 걱정이다. 잔잔한 듯 보이던 바다는 어느새 기세등등한 파도를 일으켰지만 삶을 위한 잠녀들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개발이 남기고 간 생채기

한림항이 개발되면서 마을 바다는 거의 다 사라지고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래반 어촌계장(71)은 "한때 70명 가까운 잠녀가 작업할 정도로 좋았던 바다가 한림항 개발로 모두 매립됐다"며 "개발이후 바다도 없어지고 인심들도 흉흉해지는 등 남은게 없다"고 말했다.

지난 1989년 개발 당시 보상금 분배 문제 등으로 어촌계원들간에 의견이 엇갈리면서 와해 수준까지 떨어진 어촌계는 아직도 그 상처를 다 보듬지 못했다. 단위마을로는 규모가 큰데다 '준도시'성격이 강해 어촌계의 의미도 그다지 크지 않다고 했다.

바다가 없다보니 바깥물질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멘화약세 등으로 1월 한달동안 소라 수매가 중단되다 보니 잠녀들 중에는 벌써부터 일본 등 바깥물질을 준비하고 있다.

지선어장에 1년에 200만~300만원을 들여 전복종패를 넣고 있기는 하지만 사정은 다른 어촌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나마지는 한수 바다와의 경계(‘톤대섬’이라고 부른다)에서 10월 공동작업을 하는 것, 비양도 공동어장 작업이 전부다.

잠녀들의 수익이 줄면서 어촌계 운영도 힘들어져 지금은 항만건설 이전 모아둔 자금을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직접 눈으로 훑어본 한림 바다는 가슴이 저리도록 작았다. 차를 타고 지명을 확인하던 다른 어촌계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이 곳이 전부”라며 팔을 한번 휘저은 김 어촌계장의 쓴 미소가 한림 바다를 대신하는 듯 했다.

수많은 예술가들이 그려왔지만 한결같은 바다는 없다.

같은 바다라도 시간, 계절, 해무나 태양, 파도 심지어는 적조같이 붉게 오염된 해양조건 등 갖가지 이유로 늘상 다르게 다가온다.

버린 적은 없다지만 버려진 바다들이 굳게 가슴을 닫는다. 이 바다가 가슴을 열고 다시 우리를 받아들이는 날이 올까. 무언가 두고 온 것처럼 마음이 무겁다.

‘발로 밟는 잠녀들의 삶’ 다음 이야기는 한림읍 한수리이며, 관련 내용은 해녀박물관 홈페이지 (www.haenyeo.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